

예고된 학교 집단감염...교내 방역 '초비상'

광양·순천 중, n차 감염 확산...감염경로는 '미궁'

방역 당국, 코인노래방·PC방 연관성 여부 '축각'

최근 전면 등교 이후 광주와 전남의 교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교내 감염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번지거나 교육에 차질을 줄 수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교가 가장 안전할 것'이라는 교육 당국의 그릇된 판단과 허술한 교내 방역 지침이 집단 감염을 불러왔

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면 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광주 22명, 전남 43명 등 총 65명의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에서는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5명 ▲초등학교 29명 ▲중학교 31명 ▲고등학교 23명 ▲특수학교 1명 등 89명의 학생과 7명의 교직원 이 확진 판

정을 받았다. 방학 기간이었던 지난 한 달 동안 학생 확진자가 64명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전면 등교에 따른 단체 생활로 추가 감염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실정이다.

전남에서는 광양과 순천 한 중학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 'n차 감염'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도내에서는 학생 46명, 교직원 7명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 중이다.

광양의 한 중학교 1학년 학생 1명이 지난 4일 확진돼 학생과 교직원 등 500여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해당 학교 관련 확진자는 이날 현재 31명으로 늘었다. 이 중 23명이 학생이고, 8명은 학생들의 가족들이다. 그러나 이들 확진자들의 최초 감염 고리 등 정확한 감염원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방역 당국은 확진된 일부 학생들의 동선이 PC방과 이어진 것을 확인, 연관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는지와 코인 노래방 이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순천에서는 지난 3일 한 중학교에 다니는 3명의 학생이 개별 감염되기도 했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6명의 학생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학교에서의 감염경로도 오리무중이다. 일각에서는 교내 방역 허점이 이번 학교 집단감염을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증상 확진자가 많지만, 교문 앞 열 체크 등은 무용지물인 데다 늦장 대응도 한몫 거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집단 감염 이후 학교 보건 관련 업무 담당 장학사는 여전히 단 1명 뿐이며,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야 대책을 세우는 등 땀질식 행정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교육 당국과 방역 당국은 방학 시기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생 밀집

지역인 학원 대상 전수검사 등 점검과 원격 수업 전환 등 '소일고 의양간 고치는 격'의 대책을 내놨다.

전면 등교에 대한 안전한 준비와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만 책임을 지운 교육 방침이 되레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전파라는 결과를 내놨다는 비판을 면치못하게 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집단 감염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간 학부모에 의한 학생 감염이 대부분이었다"면서 "학생들의 하교 후 활동을 임의로 금지할 수 없는 만큼 지속·반복적 교육으로 코로나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지·임후성 기자

이낙연, 의원직 전격 사퇴 텃밭 지지층 결집 '배수진'

광주 기자간담회서 깜짝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며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에 진 빛을 갚겠다"고 밝혔다. <사진> 이 전 대표는 "5·18 영령들이 지키고 자 했던 것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것도 민주주의의 가치였다"며 "우리는 5·18 영령 앞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희생하고 헌신했던 선배 당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는 경선 초반 경쟁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주 조짐을 보인 데 따른 배수진 전략으로 보인다.

당의 최대 텃밭인 호남 경선(25-26일)을 앞두고 '호남의 심장'인 광주에서 의원직 사퇴 카드를 던짐으로써 지지층 결집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초반부 이재명 지사 쪽으로 기운 판세를 되돌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호남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담겼다



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서 모든 걸 던져서라도 정권 재창출에 집중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4년 임기 국회의원으로서 뽑아 주신 중로구 민들께는 한없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호남에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질문에는 "호남 일정에 맞춘 것은 아니다"라며 "한 며칠 동안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바로 서울에 연락해 (의원직) 사퇴서를 낼 것"이라며 "국회가 당사자 의견을 존중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의원직 사퇴 카드는 본경선 돌입 이후 캠프 내부에서 간간히 언급되기는 했으나 비중있게 검토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주말 충청경선에서 내리 완패하자 이 대표는 하루 간의 '집거' 끝에 반전 카드로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행 기자



모처럼 펼쳐진 파란 가을 하늘 한동안 이어졌던 비가 그친 8일 오후 광주 남구 사직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위로 몽게구름과 파란 가을하늘이 펼쳐져 있다. /김애리 기자

전남 철도 예산 사상 최다 4천억 확보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1천200억

호남고속철 2단계도 2천617억 편성

전남도가 내년 정부예산안에 철도 분야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4천억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8일 "광주송정-보성-순천을 잇는 경전선 전철사업 국비 1천200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한 것을 비롯, 2022년 철도 분야 국비가 4천억여 원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전선 전철사업은 총연장 122.2km에 1조7천703억원을 들여 최고속도 250km/h의 준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9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본 계획 수립 중으로 연내 완료 예정이다.

올해 사업비 207억원에 이어, 2022년 사업비가 대거 반영됨에 따라 보성-순천 구간을 탄기방식으로 우선 착공할 계획이다.

2023년 개통 예정인 보성-임성리 철도에 이어 보성-순천 구간이 완료되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대 생활권이

된다.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져 지역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남도 철도 분야 예산은 올해 예산액 3천947억원보다 5.8% 늘어난 4천174억원이다. 2022년 보성-임성리 간 철도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비가 줄었음에도 전남도의 노력으로 호남선과 경전선 철도 구축 사업비를 대거 반영해 역대 최대 규모의 철도 분야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노선 별로 광주송정-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2천617억원을 확보해 20

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보성-임성리 간 철도사업 123억원, 진주-광양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234억 원을 확보해 2022년 완공 후 2023년 개통 예정이다.

이상훈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사업,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 전남지역 철도망 구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Today
광주시 택시 감차사업 '올스톱' 3면
도심 애물단지된 공공전화부스 6면
주담대고삐...신용대출 풍선효과 12면

2022 지방자치 아카데미

2022 ACADEMY OF LOCAL AUTONOMY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지역발전과 주민들에게 봉사 할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최고의 지방자치아카데미

2022 지방자치 아카데미 모집요강

- 지원지역** |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및 선거에 관심있는 시민
- 모집인원** | 0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2021년 9월 26일 ~ 12월 (10강좌)
- 강의시간** | 매주 일요일 오후 (19시~21시, 18시부터 식사)
- 강의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K스튜디오 헬스미나실

2022 지방자치 아카데미 모집요강

- 전형방법** | 입학원서(소정양식), 반영합판 사진 1매
- 수강료** | 280만원(부가세 포함)
- 입금계좌** | 광주은행(016-107-323257)(주)광주매스컴
- 접수마감일** | 9월 24일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

강사진 구성 및 강의내용

강사진	강의내용	강사진	강의내용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위원장	지방선거의 중요성 및 지방정치의 역할	최정목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대표	왜 다시 골목선거인가
박시영 원지코리아컨설팅 대표	위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기는 선거전략 및 캠페인)	최재용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장	지방선거 필수전략
박진영 공익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선거후보자 이미지와 최우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대표	여론조사의 활용과 대응
오승용 김민정채리서치 대표	정치분석 능력 및 인력 키우기	광주광역시 선관위 과장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사례 및 정치자금법 해설
지병근 조선대학교 교수	유권자의 투표성향 및 속성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한민국의 미래
최광용 데이터경영 대표	데이터로 보는 선거전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바람직한 정치와 정치인의 자세

*강사진은 아카데미 입장상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022 지방자치 아카데미 특전
PREFERENTIAL TREATMENT

- 광주매일신문 및 광주매일TV 지원
- 원우회를 통한 친목활동 지원
- 교육평가 우수자에 대한 시상
- 자서전 집필 및 출판기념회 지원
- 선거출마시 지원 및 여론조사 지원

주최·주관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n Pol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